

다산포럼

현실과 영화 사이, '광장 예술'의 희망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어쩌면 좋아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재미있으니...” 요즘 필자가 자주 듣는 안부 인사다. 뉴스에도 영화와 현실을 비교하는 문구가 단골로 등장한다. 국정 난국 사태를 다루는 기사에 ‘영화를 초월한 현실’, ‘영화보다 더한 막장’ 같은 표현이 난무한다. 영화적 상상력 이상으로 펼쳐지는 충격적 현실에 ‘막장 드라마’ 꼬리표를 붙인 셈이다. ‘막장’은 탄광의 경도 끝 작업장이라는데 말은 같아도, ‘막장 드라마’란 상식 이하 요소들을 ‘막’ 산포하는 억지스러운 드라마를 칭하는 표현처럼 보인다.

뉴스와 아날로그 광장을 오가며 펼쳐지는 일상과 역사의 만남은 문화예술과 그 통로인 미디어업계 풍경을 바꿔 놓았다. 2016년 말, 영화 관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데 열린 영화 포럼에서 “영화보다는 뉴스, 극장보다는 광장에 가니 (극장 매출) 성적 이 안 좋다”라는 영화업 종사자의 진단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후기 정보사회 뉴미디어로 지속적 성장을 해 왔던 IPTV의 주문형 비디오(VOD) 매출도 지난 2~3개월 사이 감소했다. 시청자들이 영화보다 뉴스 보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차례 속보가 터져 나오는 충격적이고 아픈 현실 예나저나 주말 ‘광장 예술’로 만발하고 있다.

2015년 말 ‘내부자들’은 영화 세상과 현실 세상의 교집합을 보여 줬 커다란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이르러 ‘내부자들’은 오히려 (부패한) ‘현실 미화’ 영화라는 네티즌들의 재평가도 퍼져나가고 있다. 이 영화의 명대사로 꼽히는 언론사 논설주간의 “민중은 개·돼지입니다”란 말이 현실 세상에서, 바로 교육부 관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도 발생했다. 영화와 현실이 피비우스의 피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현실 영화판이다.

하여 그 후속작을 구상했던 우민호 감독은 그 기회를 잡았다. “이번 사태 전까지 같은 배우들을 데리고 ‘내부자들2’를

다시 한 번 할까 했는데, 못 만들 것 같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겠다. 만들 수 있는 감독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까도 까도 나오는 갈등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하고, 캐릭터도 더 매력적으로 손본다면 굳이 ‘내부자들’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한국 영화는 풍부한 정치 스타릴 소재들을 선물로 받은 셈이다.

원전발전소 재난을 다룬 최근 개봉작 ‘판도라’에 출연한 정진영은 영화와 현실을 비교하며 “홍행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나라가 제대로 서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한다. 상자가 열려 온갖 불행이 쏟아져 나오지만 거기에 담겨 있던 희망도 나오는 것이 바로 판도라 상자의 힘이니까.

현실과 영화의 역동적 관계는 역사와 영화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히틀러의 강력한 ‘영화 정치’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영화연합을 결성하고, 1932년에 세계 최초 국제영화제 베니스영화제를 창설했다. 이어 1937년, ‘영화 도시’란 이름을 붙인 거대한 종합 촬영장 ‘치네지타’가 건설됐다. 로맨스 판타지로 대중을 홀린 멜로드라마 ‘백색전화’와 ‘화’가 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전장으로 치네지타 역시 난국에 처하자 영화 청년들은 쓰다 버린 필름과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간다. 현실과 영화가 함께 돌아가는 새로운 사실주의 영화, ‘네오 리얼리즘’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 선구작으로 꼽히는 ‘강박관념’(1943, 루키노 비스콘티)은 상투적 로맨스 판타지를 전복시키며, 부익부 빈익빈 현실의 부조리를 폭로해 낸다.

영화 세상을 통해 아픈 현실을 살아 낼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이런 정신은 켄 로치의 칸영화제 대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브레이크’로 이어진다. “국가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sns 시대답게 세계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극장으로 날아온다. 목숨을 살아온 종년의 다니엘이 지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실직수당을 받으려고 고군분투하며 체험하는 관료제도의 반인간적 얼굴은 한국 광장에서도 재보된다. 퍼즐과 같은 국가에 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정치인이 바른 자리에 위치해야 국가가 완성된다”는 한 청소년의 외침은 영국의 목수와 공명하는 이곳에서 열린 판도라 상자의 희망이다.

기고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光州)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다. ‘사람중심의 휴먼도시’, ‘역사의 도시’, ‘문화기치가 큰 도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젠 ‘기술이 있는 도시’가 더해져야 한다.” “자연+역사+전통문화 진화되어야 한다.” “그릇+음식+술은 삼위일체다.” “20~30년 미래를 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광주는 무등산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광주호 주변 생태태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 중의 일부다. 윤장현 시장 초청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는 최선화 문화재청장, 조태권 광주유(廣州窯)회장, 이근규 방송인, 김영일 홍보전문가, 양홍서 건축가, 쿠니요시 나오유키 도시디자인사 등 쯤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인사들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 긴 시간을 배려해 줬다. 고마운 일이었다.

도시나 국가도, 사람이나 기업처럼 태

앞서가는 도시-광주의 ‘새로운 도전’

어났다 소멸한다. 폼페이, 앙코르와트, 마추픽추 등 역사속의 많은 도시와 국가가 입증한다. 앞으로도 ‘죽는 도시’는 나올 것이다. 과거의 도시들은 전염병·전쟁·화산·해일 등으로 사라졌다. 과학이 진전된 지금은 일지라가 없는 도시는 죽는다. 청년이 없는 도시 또한 생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광주는 진보적도시다”고 말했다면, 나는 진취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사람중심 ‘인간애’와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민주를 세우고 평화를 가꿔왔다. 의병, 임진왜란,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광주민중화운동 등 역사의 편철을 들여다 보면 확인해진다.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폭력 촛불시민혁명’의 뿌리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5·18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퇴각한 22일부터 재진입한 27일까지 무정부 상태의 광주는 강도, 살인, 약탈, 방화 등의 불법은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는 대동(大同)시민세상이었다.

현재 진행중인 대통령탄핵운동이 무혈 시민혁명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5·18때도 그랬다. 광주는 시대의 ‘퍼스트 무비’이고, 역사를 선도하는 도시다. 이번에 만난 전문가들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제4차 산업혁명의 넘실대는 파도를 타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의 반열에 올랐다. 아시아문화전당(ACC)도 집안보다 집밖인 외국에서 더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다. 세계 8개국 9개 도시 중의 하나다. 미디어아트는 21세기를 밝힐 새로운 문화예술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크 리옹, 앙기앵레벵, 일본 삿포로, 세네갈 다카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야포, 영국 오크, 미국의 오스틴, 오스트리아 린츠 등과 자웅을 겨루기 시작했다. ‘빛의 도시’ 광주가 ‘빛’으로 세계를 향해 빛을 발사하기 시작한 셈이다.

빛을 시민문화회관에 들어선 홀로그래픽장, 미디어놀이터, 디지털 갤러리,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338 등은 국내 최초의 시설이 많다. 이 또한 ‘선도도시’ 광주의 한 모습이다.

광주는 문화중심도시의 세계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충효동과 담양군 남면 일대를 무대로 하는 가시문학과 자연생태계를 융합시킨 ‘동류남도 나들이 사업’과 올림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무등올림축제’,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프리디제스티벌, 광주 전제를 전란

한 빛의 도시로 가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사업은 광주문화예술의 핵심콘텐츠가 될 것이다.

“광주엔 문화예술 자원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다. 구슬은 서 말인데 꿰지 않았다는 풀이다. 이를 용·복합시켜 ‘광주형 문화예술’로 탈바꿈 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다. “앞서가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개척자는 안개 속을 헤쳐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크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통이고 협업이고 협치(協治)다. 시민모두 함께 가야 한다.

앞서가는 도시-광주의 미래를 위해 이연말에 털고 가야할 것도 있다. 자기 앞에 손가락 먼저 놓으려는 태도, 스스로 할 일도 남이 해주기 바라는 자기중심적 태도,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우울함, ‘내가 빠지면 무조건 아니다’는 편집증 등등. 이는 ‘광주정신’이 아니다.

시대는 변한다. 이번 촛불집회를 리더·폭력·선동이 없는 3무혁명(三無革命)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모두가 리더이고, 평화주의자이며, 선동은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라는 뜻 아닐까. 병신년(丙申年) 해가 진다. 역사의 엄중함으로 한국사회는 앓고 있다. 광주부터 바뀌자. 광주는 앞서가는 도시다. 곧 세 해가 된다.

社說

의원들 증인과 만나 무슨 말을 주고받았나

어제(12월19일)로 딱 4년이 됐다. 4년 전 그날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됐다. 환호하는 국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박 대통령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 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는 어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1월31일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인 지 50일 만에다. 하지만 당시 죽을죄를 지었더라 용서해달라던 모습은 간 데 없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대통령과 공모 혐의로 송두리째 부인했다.

아무래도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생각보다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혐의 전면 부인은 물론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까지 위증 교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만희·이완

영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들과 사전에 만나 최순실 씨 소유 태블릿 PC의 인문사 입수 경위를 위증하도록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의 한 일간지는 이완영 의원이 지난 4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의 소유고, JTBC가 이를 절도한 것으로 위증하도록 제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위증 모의 의혹을 받은 건 이만희 의원이다. 고영태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태블릿 PC에 대해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질의응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뒤 열린 청문회에선 이 같은 예측대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국원을 대표해서 진실을 조사해야 하는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해서 관련 증인과 사전에 입을 맞췄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청문위원 교체와 함께 특검에서 이 부분 또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 행정이 부른 북새통 송정역사

지난 16일 수서발 KTX가 개통된 이후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사가 밀려드는 승객들로 대혼잡을 빚고 있다. 당초 이용객 추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탓에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광주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1만2000명으로 예상하고 지난 2015년 문을 열었지만 수서발 KTX(SRT)가 개통하면서 2만5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대합실·식당 등 역사 곳곳이 북새통이다. 3층 대합실에서 승객들이 선 채로 열차 탑승 시간을 기다리는 광경도 자주 볼 수 있다.

주차장도 딱 들어찬 바람에 주차를 하지 못한 채 짜증을 내며 되돌아 나가는 운전자의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이에 따라 역사를 관리하는 코레일 측은 최근 임시방편으로 200명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역사 주변에 개설했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찾기도 힘들다.

사실 이 같은 대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KTX 개통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채 송정역사를 설계한 탓에 대합실·편의시설·주차장 등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문제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측이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엘리베이터 2대 증설 등 땀집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당초 2017년 완공 예정이었던 송정역복합환승센터가 대안이긴 하지만 부지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 아직 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와 코레일 측은 조속히 부지 매입을 매듭짓고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無等鼓

노래 한 곡이 만들어지는 데도 이런 저런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 록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신중현 작사·작곡의 ‘아름다운 강산’도 그러하다. 이 노래는 유신정권의 정책적 탄압 속에서 탄생한 걸작이다.

1972년 어느 날, 신중현은 청와대에 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온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할 수 있도록 ‘각하의 노래’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중현은 정중히 거부했다. “나는 그저 음악하는 사람일 뿐 그런 노래를 만들 만한 능력이 못되니 다른 사람들

현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희만 애국자냐? 나도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아름다운 강산’이다.

신중현은 그러나 이 노래로 더욱 청와대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아름다운 강산’이 실린 ‘신중현과 엽전들’ 2집 앨범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급기야 1975년에는 대마초 사범으로 구속되었고, 1979년 10·26 이후에야 모든 음악

활동 규제가 풀렸다. 신중현의 아들인 록 밴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자신의

아름다운 강산

SNS에 “친박 단체들이 집회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촛불 집회 집행부는 나를 섭외하라. 내가 제대로 된 버전으로 연주하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강산’은 광장에 모여야 할 촛불을 밝힌 모든 이들의 모습일 것이다. “손잡고 가 보자 달려가자 저 광야로/ 우리는 모여서 말해 보자 새 희망을/~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교단에서



김진구
울산선천학교 교장

몇 년 물수능인가 싶더니 올해는 볼수 능이다. 볼볼 못 가리는 수능도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제도가 어떠한 원하든 대학이나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학생 당사자나 학부모들은 잘 안다. 그런데 말 한 마리로 이대를 쏙대(밭)로 만들어 놓고 교육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엘리트체육과 체육 특기자 전형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고 특히 새해부터는 말 때문에 고개 속이는 수험생이 없기를 바란다. 아울러 병신년 세대에 말의 역할을 풀기 위해 마공약전(馬公略傳)을 쓴다.

나는 말이 없다. 그저 히히잉~ 웃고, 불만이 있을 때는 앞발로 글을 뽐낸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 했듯 동풍이 부나 북풍이 부나 세상일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주인과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TV 화면에 자주 나타나고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

마공약전(馬公略傳)

이 많다. 내 친구 우공은 힘으로 인간을 돕다가 이제는 젓이나 삼고기 제품으로 역할을 바꿨지만, 나는 지금도 전공대로 달리기로 살고 있다. 엔진이 뒷발에 연결된 후륜구동이며 앞발은 도약과 몸무게를 지탱한다. 마방에서 쉴 때 뒷다리는 교대로 들지만 앞다리는 들지 않는다. 머리와 목으로는 방향과 중심을 잡는다. 500kg 덩치여서 노력이 절도지만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 발톱, 맹목이 없어 그저 뛰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이다. 형식 불안하기에 큰 눈으로 350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꼬리부분 10도 때문에 약간의 뒷발차기 특기가 있다.

교단은 좁었지만 순하고 겁이 많다. 날아가는 참새나 나뭇가리기 비날봉지에도 놀란다. 거친 풀이라도 한번 먹으면 그뿐 되새김이 없기에 가장 큰 병이 산통 즉 배 아이다. 산통이 생기면 대변이 나올 때까지 마장을 돌아 장 운동을 해야한다.

내 몸의 장식물은 대체로 인간을 위한 것이다. 앞니와 뒷니가 떨어져있는데 이 사이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와 연결하여 운전대와 브레이크로 사용한다. 액셀러레이터는 부츠 뒤꿈치에 붙어있는 쇠발이 박자다. 인간세상에서 올바른 주장에 재갈을 물리고, 신속한 일처리 주문에 박차를 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용어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죽을 것이다. 누군가가 독자 여러분

의 예민한 갈비뼈 사이를 뽐냈을 쇠불이 그 록록 찌른다고 생각해보자. 소름끼치는 일이 아닌가.

발굽은 통발로 신경이 없어 쇠불이를 박을 수 있다. 편자다. 편자 때문에 발전한 대장간은 최초의 제철소이며 도제 기능사를 배출한 공과대학이다. 편자 박은 발굽 아래 세상은 요동쳤으며, 수많은 제국이 나의 발굽 소리와 함께 흥하거나 망했다. 편자가 편하다고 소문이 나자 견공들도 발에다가 쇠불이를 박겠다고 한다. 하여 ‘개 발에 편자’라 했는데, 분수나 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높은 지위, 명품 옷을 걸쳐도 언행이나 품성이 추한 ‘인간 몸통에 편자’도 많다.

축보에 따라 몇 십억이지만, 이견 손실대이나 삼성이야기이다. 천차만별 중고기 차시장과 비슷하다. 2,3백만 원짜리도 많다. 범퍼가 깨진 차가 있을 관철염으로 절뚝거리거나 사동이 잘 안 걸린 친구도 있다. 올림픽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마칠기삼이라고 하여 기수보다 도내 역할에 큰 비중을 둔다.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그림은 유명하지만 가짜다. 그런 자세로는 바로 떨어진다. 그의 말은 마렝이라는 소형마였다고 마부가 기진맥진 끌고 올라갔다. 알렉산더의 부계팔로스, 항우의 오추마, 관우의 적토마가 이름난 친구들이며, 기생 천관의 집으로 술 취한 김유신을 데려갔다

고 목이 날아간 억울한 친구는 귀소본능 때문이었다.

등산이 있으면 하산이 있는 법. 승마(乘馬)를 하면 반드시 하마(下馬)나 낙마(落馬)를 해야한다. 하마는 스스로 내려오는 자의적인 행위이고, 낙마는 부당한 지시나 불통으로 인한 무게중심의 이탈 결과이다. 고수란 낙마를 줄이는 사람이다. 인간 세상에서도 때맞춰 내려놓지 않아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지록우마(指鹿爲馬)는 진나라 환관 조고가 바른말을 한 신하들을 처단하고 왕을 농락해서 생간 한자성어인데, 이제는 지용위계(指王爲鷄) 즉 ‘백성들을 왕을 가리켜 닭이라 불렀다’는 사자성어가 우리 역사서에 전해질지 모르겠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가 3대 16년 만에 망했는데 병마(兵馬)가 없어서 망했는가. 조랑말 포니(Pony)로 시작해서 대형마 에쿠스(Equus)로 발전한 나라인데 정치는 청와대 앞에 촛불이요, 경제는 바람 앞에 촛불이다.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있음은 분명히 상소하면서 내 소개를 마친다.

침언하면 필자는 곡성에 3평 남짓 토담 집을 지어 ‘일우현’이라 명하였다. 그곳에서 세상을 주유하듯 살고 싶어 ‘일우마옹’(一隅馬翁)이라 아호를 짓고, 수년째 말타기 연습 중이다. 맛있게, 맛있게 타기 위해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